

조선대 차기 총장선거 직선제 유지될까 촉각

정부는 간선제 압박... 18일 이사회서 논의 관심 집중 대학 자율성·민주사학 등 이유 직선제 목소리 높아 강동완·김수관·민영돈·박대환·윤창륙·차용훈 6명 출마 밝혀

조선대가 차기 총장을 어떻게 뽑을 지를 놓고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도 이래적대로 총장 직선제를 유지해왔지만 정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과 배치되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조선대 이사회가 관련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6명의 총장 후보들도 선출 방식에 대한 유훈리를 따지며 이사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선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조선대 이사회실에서 법인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토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선대 이사회 이사들은 지난달 차기 총장 선출 일정 등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이날 선출 방식을 놓고 구체적으로 토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식 안건이 아닌, 기타 사항으로 논의되는 만큼 선출 방식은 3월 열리는 차기 이사회 때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 1988년 이후로 15대 총장

까지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직선제를 유지해왔다. 총장 후보들 사이에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조선대 민주화 역사 등을 거론하며 직선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부가 '총장 간선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학 입장을 고려하면 선뜻 직선제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대학 안팎의 분석이다. 당장, 조선대가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PRIME)의 경우 총장 선출 방식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기에 조선대 이사회가 지난 2012년 9

월 이후 차기 총장 선거는 이사회가 임명하는 간선제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 등도 고려되면서 간선제로의 선출제도 변경 문제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오수열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선출제도 변경 문제가 소수의 논의 구조속에서 결정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야합이 될 수 있고 강력한 반대 투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치과대학에서만 강동완, 김수관, 윤창륙 교수 등 3명이 총장 선거 출마 입장을 공식화했고 민영돈 전 조선대병원장, 박대환 대외협력처장, 차용훈 전 산학협력 단장도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47초만에... 1300만원 턴 5인조

등산복 매장서 의류·현금 훔쳐...담양경찰 CCTV 추적 검거

13일 새벽 4시24분 담양군 담양읍 담양아울렛 부근에 수상한 남성 5명이 오토바이 3대에 나뉘고 나타났다. 이들은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에도 헬멧을 벗지 않고 주변을 서성거리며 5분가량 대화를 주고 받았다.



5분 뒤 이들은 주변에서 주운 벽돌로 안모(4)씨가 운영하는 아웃도어 전문매장인 '아이더(eider)' 담양점의 두꺼운 통 유리벽을 내리쳤다. 유리벽이 끄덕도 하지 않자 재차 열 유리벽을 향해 벽돌을 던졌다. 순간 통 유리에 금이 가면서 파편들이 쏟아져 내렸다.

결과 이들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7초. 10여분 뒤 보안업체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광주로 달아난 뒤였다.

이들은 범행 이틀 만에 CCTV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차분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물건을 봐둔 것처럼 마음에 드는 등산복을 챙겼다. 헬멧은 여전히 착용한 상태였고, 범행을 위해 배드민턴 가방을 준비한 남성과 있었다. 이 중 한 명은 가장 먼저 금고로 달려갔고, 다른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봤다.

담양경찰은 15일 등산복 매장에서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6)군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동네 선후배인 김군 등은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물건을 또 다른 친구의 원룸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와 헬멧도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서 범행 직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들은 이날 모두 1300만원 상당의 의류 40벌과 금고에서 현금 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매장 내 CCTV 확인

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마약 판매책 등 20명 추가 검거

광주서부경찰 12명 구속

광주를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등이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판매·투약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1주일 만에 마약사범 10명을 검거(광주일보 11월26일자 6면)한데 이어 이달 초까지 20명을 추가로 붙잡은 것이다.

광주서부경찰은 광주·부산·아산·인천 등 9개 지역에 마약을 유통하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인천 K파 행동대원 김모(43)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주부 이모(57)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혐의로 광주지역 S파 두목(56) 등 10명을 붙잡았다. 이후 이들에게서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공급총책→판매책 1→판매책 2→판매책 3~5→투약사범으로 연결되는 점조직의 정점에 선 공급총책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마약 판매책과 투약자를 추가로 붙잡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필로폰 35g, 대마 4.5g, 일회용 주사기 39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구속된 인천 K파 행동대원 김씨 등 30명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투약하거나 판매한 필로폰은 총 180g(6000명 동시 투약분)으로 시가 1억8000만 원어치며, 이들에게 공급된 필로폰은 부산·인천·충남 아산 등 항구지역에 거점을 두고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공급책이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목표를 거점으로 마약을 반입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 및 수도권과 달리 마약류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남에 마약 사범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예의주시하고 공급총책에 대한 수사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모기 유충 퇴치 방역

광주 북구보건소 질병관리팀 직원들이 15일 북구 우산동의 주택가 일대 정화소에서 모기 유충 퇴치를 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이집트 숲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자치구들은 월동모기 일제 방제작업에 들어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거법 위반' 지역신문 발행인

전남선관위, 총선 관련 첫 고발

전남도선관위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을 의정보고회장 등에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4·13 총선과 관련한 전남선관위의 첫 고발사태다.

전남 한 지역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인 A씨는 지난해 7일자 자사 신문에 현역 의원이자 예비후보자 B씨 명의의 성명서를

광고형식으로 부각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12일에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B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다수 실린 자사 신문을 비치·배부하고, 같은 달 28일에는 B씨의 의정보고회 관련 내용을 전면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신문 1800여 부를 관공서, 상가, 아파트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B씨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문·잡지 등의 통상적인 방법 외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광주고법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전국 최다

법관 2명 증원... 민사재판부 증설키로

광주고등법원에 법관 2명이 증원됨에 따라 민사재판부 1개가 증설된다.

전국에서 법관 1인당 사건처리가 가장 많은 광주고법에 다소 부담이 줄고, 충실한 심리·신속한 처리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15일 광주고등법원(법원장 유남석)에 따르면 오는 22일자 법관 전보 인사에 따라 광주고법 본원에 법관 2명이 증원됐다. 이에 따라 민사부 1개가 증설돼 기존 2개에서 3개의 재판부를 운영하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광주고법 법관 1인당 분안사건 처리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4년 광주고법에 접수된 사건

은 총 3412건으로, 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143건에 달했다. 서울 122건, 대전 117건, 대구 127건, 부산 136건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히 법관 수가 21명으로 같은 대전고법과 비교하면 법관 1인당 26.8건(22.9%)의 사건을 더 많이 맡아 처리했다. 광주고법의 접수사건은 2010년 2712건에서 2011년 2762건, 2012년 3045건, 2013년 2913건, 2014년 34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민사부 증설로 법관 1인당 사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6개월간 공사장 돌며 구리 전선 무려 33km 절도



○...통과 절단기를 양손에 들고 공사장을 돌며 6개월간 무려 33km에 달하는 구리 전선을 훔친 2인조 절도범이 쇠고랑 신세.

○...15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동종 전과가 있는 A(58)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하순부터 이달 초까지 광양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공사장과 전복, 경남지역 각종 공사현장을 돌며 모두 45차례에 걸쳐 6

억6400만원어치의 구리 전선 3만3200m를 훔친 혐의.

○...A씨 등은 주변 CCTV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이들은 "값비싼 구리전선이라도 장물로 판 탓에 실제 손에 쥔 돈은 1억원도 채 안됐다.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싶어도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해버렸다"고 고술.

/광양=박영진기자 pyi4079@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